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Received: July 15, 2021
Revised: August 27, 2021
Accepted: September 6, 2021

이현엽¹, 현승주², 강성록³
육군사관학교 심리경영학과/ 부교수¹, 육군사관학교 심리경영학과/ 강사²,
육군사관학교 심리경영학과/ 교수³

교신저자: 이현엽
육군사관학교 심리경영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Impact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on Psychosoci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Latent Profile Analysis

E-MAIL:
leehyuny@mnd.go.kr

Hyunyup Lee¹, Seungju Hyun², Sungrok Ka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Associate Professor¹
Department of Psychology &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Lecturer²
Department of Psychology &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Professor³

© Copyright 202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2021년도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방식의 유형이 사회정서발달(정서 문제, 자아 인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중1 패널 1차 연도 자료(부모 양육방식)와 3차 연도 자료(사회정서발달)를 활용하였다. 1차 연도 자료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모두 응답한 2,345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잠재계층(일반형, 부정양육형, 긍정양육형, 양가형)으로 분류되었다. 집단 간 사회정서발달 변인들이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양육형' 집단에서 정서 문제들이 가장 낮았고, 자아 인식과 관련된 변인 및 삶의 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가형' 집단도 '일반형'과 '부정양육형' 집단보다 공격성, 신체 증상,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 인식과 관련된 변인 및 삶의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중학교 시기 부모 양육방식의 잠재적 계층 유형을 제시하고, 집단별로 사회정서발달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부모 양육방식, 사회정서발달, 정서 문제, 자아 인식, 잠재프로파일 분석

가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양혜진, 2005).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는 부모이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녔던 신념, 가치관, 성격 및 정서 상태 등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양혜진, 2005; Laird et al., 2005). 특히, 부모의 영향력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자녀의 아동기 및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최미혜, 2016; 황혜영, 김나영, 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발달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생애발달과정 중 청소년기는 학교생활의 적응, 또래 집단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학업적 성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다(Harter, 1990). 비록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나,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며(Rohner, 2010), 이들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사회 지향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아상을 생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인으로서 기능한다(Feldman, 1996). 그리고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부모에 대한 지각은 다른 부모와의 장기간 비교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형성된다(Schaefer, 1965). 따라서 청소년기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이 직면한 과업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인지, 행동 및 정서를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이주리, 2010).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된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김신정, 김영희, 2007; 이지영, 2016). 부모는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양육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Becker, 196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는 해당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Symonds(1949)는 부모 양육태도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부모가 자녀의 요구와 행동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지, 또는 거부하는지에 따라 수용-거부로,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지배하는지, 또는 자녀의 의지에 복종하는지에 따라 지배-복종으로 분류하였다. Symonds가 최초로 부모 양육태도의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한 이후, Schaefer(1959)는 Symonds의 모형이 임상적 사례에 치중되어 부모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상적 규준에 의거한 척도인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PARI)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PARI에서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를 수용하고 헌신적으로 대하는지, 또는 비난과 체벌을 하는지에 따라 애정-적대, 자녀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는지, 또는 엄격하고 제한을 많이 두는지에 따라 자율-통제로 분류된다. 또한, Baumrind(1971)는 부모 양육태도를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지만 필요시 확고한 훈육을 보여주는 엄격한 태도,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부모를 자녀의 자원자로 지각하여 자녀를 처벌하지 않는 허용적 태도, 가정에서의 의무와 지위에 따라 무조건적 복종을 중시하는 권위적 태도의 세 유형으로 구분

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차이가 자녀의 친 사회적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의 수용성/반응성과 부모의 욕구/통제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및 방임적 방식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발달 심리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지지되어 온 분류 방식으로 평가된다(이현숙, 조한익, 2004).

한편, 동일한 부모 양육태도라도 자녀가 지각하는 의미가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이현주, 강민희, 2008),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부모 양육태도를 분류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예를 들어, 정원식(1974)은 부모 양육태도를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또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이론, 정원식(1974)의 이론 등에 근거하여 부모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정미현, 2003에서 재인용). 특히, 허묘연(2004)은 기존의 국내 척도들이 외국의 평가도구를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번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독특한 양육 행동 요인을 포함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제작하였으며,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학대, 방치의 8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기 사회정서발달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일 요인의 부모 양육방식과 자녀의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정서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방식 중 긍정적 측면의 감독, 애

정, 합리적 설명이 높을수록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신체적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부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으로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앞선 정서 문제들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김진아, 한귀례, 2014). 이와 유사하게, 부모가 따뜻한 애정을 보일수록 자녀들은 공격성, 신체 증상, 우울 등 부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홍원준, 2020).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자아 인식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되게 수용적이고 애정적일 경우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강재희, 2006; 문두식, 최은실, 2015; 소미강, 2008; 최석강, 2003). 또한, 오정아와 김영희(2015)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애정, 감독 및 합리적 설명이 포함된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나 과잉 간섭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장의정, 강태석, 2020;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허묘연(2000)은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증가함을 밝혔다. 또한 김은경(2009), 박아청과 이승국(1999)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율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반면, 학대와 방임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 발달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았다(박가화, 이지민, 2014).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지영과 정현숙(2016)은 수용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희수(2005)는 양육태도의 지각대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아버지의 경우 수용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경우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검증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정서 문제 및 자아 인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온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논리적 설명이 동반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문제 및 자아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방임적이며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문제를 증가시키고 자아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 양육태도의 개별적 유형과 자녀의 정서 문제 및 자아 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방식이 전반적으로 어떤 군집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차별적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즉, 어떤 부모들은 애정과 합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은 높으나 과잉간섭이나 비일관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은 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의 양육방식이 모두 낮은 유형을 보일 수도 있고, 모두 높은 유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모 양육방식 유형과 이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 문제 및 자아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한편, 동일한 형태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과잉간섭, 과잉기대 및 엄격한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결과(김영민, 임영식, 2013; Shek, 2007)도 있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부정적 방식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Leung et al., 2004). 유사하게, 이평화(2012)는 부모 양육태도 중 과잉간섭과 자녀의 행복감 간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반면, 이예은(2013)의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과잉간섭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혜림과 정익중(2013)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평가되는 과잉간섭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중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요인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상이한 연구 결과들 나타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들의 양육방식이 다차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부모들은 부정적 차원의 양육방식을 주로 나타내어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지만, 또 다른 부모들은 부정적 양육방식과 더불어 긍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예, 감독, 애정 등)도 공유하고 있기에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변인 중심적 접근에 의한 부모들의 양육방식의 영향력을 검증하기보다, 다양한 양육방식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어떠한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검증한 뒤, 이러한 집단 유형별로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의 양육방식을 단일 요인의 변인이 아닌 군집의 형태로 분류하여 청소년기 정서 문제 및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소수의 연구에서 검증해왔다. 예를 들어, 황혜영과 김나영(2018)은 중학교 3

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부모의 양육방식 패턴을 각각 분류한 뒤 동일시점에서의 사회적 위축,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애정 및 합리적 설명 등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높은 집단 유형에서 정서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유사하게 임정아와 조아미(2018)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20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5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뒤, 동일시점에서의 삶의 목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애정이 포함된 집단 유형에서 삶의 목표 수준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이, 동일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 결과들은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는 장점은 있으나, 부모 양육방식이 자녀들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이 2년이 경과 한 후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사회정서발달(정서 문제, 자아 인식, 삶의 만족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애정, 감독, 비밀관성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부모도 이들 중 한 가지의 양육태도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부모들은 긍정적 측면의 양육방식과 부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을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중1 패널) 1차 연도에서 수집된 여섯 가지 부모 양육방식(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이 어떤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만약 긍정적 측면(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부정적 측면(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단일

차원 상에서 서로 양극단에 존재하는 양육방식이라면 집단 분류 결과 상반되는 집단 유형(예, 집단 1 - 高 긍정적 측면 양육방식 + 低 부정적 측면 양육방식, 집단 2 - 低 긍정적 측면 양육방식 + 高 부정적 측면 양육방식)만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육방식의 형태라면 다양한 집단(예, 집단 1 - 高 긍정적 측면 양육방식 + 低 부정적 측면 양육방식, 집단 2 - 高 긍정적 측면 양육방식 + 高 부정적 측면 양육방식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된 집단 유형별로 중학교 3학년 시기 정서 문제(주의집중, 신체 증상, 우울 등), 자아 인식(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등), 삶의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들이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은 몇 개의 계층으로 분류되며, 집단별로 세부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 문제 2.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의 군집 유형 간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의 정서 문제(주의집중, 공격성, 신체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자아 인식(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에 걸쳐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조사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중 1차 연도 패널 자료(2010년, 중1)와 3차 연도 패널 자료(2012년, 중3)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연도 자료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3차 연도 자료에서는 주의 집중, 우울증 등 정서 문제와 관련된 5개 변인과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 등 자아 인식과 관련된 3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자아 인식 변인 중 자아탄력성은 3차 연도에서 측정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다. 추가로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도 3차 연도 패널 자료에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기준 총 조사대상자 2,351명 중 부모의 양육방식에 응답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2,34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 1170명(49.9%), 여학생 1175명(50.1%)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부모 양육방식

2010년(1차 연도 패널 자료)에서 수집된 부모 양육방식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님의 평소 모습을 측정한다. 6가지 양육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비밀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가된다. 원자료에서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되었으나, 각 영역별로 해석의 용이

성을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재코딩하였다. 각 영역별로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부모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감독 .76, 애정 .82, 비밀관성 .61, 과잉기대 .70, 과잉간섭 .64, 합리적 설명 .74로 나타났다.

사회정서발달 변인

사회정서발달 변인들은 2012년(3차 연도 패널자료)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했다. 먼저, 정서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은 주의집중 7문항, 공격성 6문항, 신체 증상 8문항, 사회적 위축 5문항, 우울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자료에서 각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되었으나, 각 영역별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재코딩하였다. 각 변인별로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정서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주의집중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주의집중 .83, 공격성 .81, 신체 증상 .88, 사회적 위축 .88, 우울 .91로 나타났다.

자아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자아존중감 10문항, 자아정체감 8문항, 진로정체감 8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위 정서 문제 변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코딩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 10문항 중 5문항과 자아정체감 8문항 중 5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문항을 고려하여 재코딩하였다. 각 요인별 총점을 통계분석에서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자아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변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자아존중감 .82, 자아정체감 .63, 진로정체감 .8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KCYPS자료에서 삶의 만족도는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위 문항들도 4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측정되어(1점: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앞선 정서 문제 및 자아 인식 변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코딩하였으며, 총점을 통계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을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1차 연도에 수집된 여섯 가지 양육방식(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어진 데이터에 기반하여 군집들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군집분석과 달리,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각 집단이 고유한 분포를 갖고 있으며, 분석을 실시하는 데이터는 이러한 집단들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도출된 표본으로 가정한다(Pastor et al., 2007). 따라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ein et al., 2013).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모델 적합지수가 사용된다. 첫째,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로서,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과 The 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ABIC)은 가장 간명한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치를 사용한다. 값이 낮을수록 모델 적합도가 우수함을 나타낸다(Tein et al., 2013).

둘째, 우도 비율 검정(likelihood ratio test)으로서, The Vong-Lo-Mendell-Rubin test(LMR), The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adjusted LMR), 그리고 The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BLRT)가 사용된다. 위 기법들은 잠재계층의 수가 k 인 모형과 이보다 계층 수가 하나 적은 $k-1$ 인 두 모델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경우 k 모형이 $k-1$ 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결정하게 된다(Tein et al., 2013). 예를 들어 2개의 잠재계층으로 구성된 모델과 3개의 잠재계층으로 구성된 모델을 비교하여 통계적인 p 값이 .05보다 작을 경우, 이는 3개의 잠재계층 모델(k 모형)이 2개의 잠재계층 모델($k-1$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모델 적합도 기준으로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과 Entropy 값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적합도가 잠재계층의 수를 선택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명되어(Tein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 잠재계층(중학교 1학년 시기)을 분류한 뒤, 각 집단 유형에 따라 3차 연도(중학교 3학년 시기)에서 사회정서발달의 요인들(주의집중, 공격성, 신체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일원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후, 집단별 세부 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은 scheffé 기법을 적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집단비교 분석(ANOVA)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결 과

부모 양육방식 유형분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잠재계층을 확인하고자 계층의 수를 2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1개씩 증가시켜 최종 5계층의 모형까지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정보-기반 적합도를 나타내는 BIC, SABIC에서는 모두 2계층에서 5계층까지 지수의 값이 감소하였다. 즉,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도 비율 검증의 경우, LMR, Adjusted LMR, BLRT 모두 4계층 모형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2계층 보다는 3계층 모형이, 3계층 모형보다는 4계층 모형이 더 적합한 모델임을 보여주었다. 5계층 모형에서는 비록 BLRT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LMR과 Adjusted LMR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LMR과 Adjusted LMR의 경우, 4계층과 비교했을 때 5계층 모형이 더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최종 잠재계층 수는 전반적으로 모델 적합도에서 우수하게 판명된 4개의 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4개의 잠재계층별 구성인원 및 부모 양육방식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은 1,016명(43.3%)이 집단 1에, 202명(8.6%)이 집단 2에, 671명(28.6%)이 집단 3에, 456명(19.4%)이 집단 4로 분류되었다. 비교적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단 3과 집단 4가 집단 1과 집단 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애정의 경우는 네 개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에서는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는데, 집단 2, 집단 4, 집단 1, 집단 3 순으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집단 2에 속한 청소년들은 부모 양육방식에 대해 비밀관적이고, 과잉기대가 높으며, 과잉간섭이 심하다고 보고하였고, 반대로 집단 3에 속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부모 양육방식에 대해 비밀관성, 과잉기

표 1. 잠재프로파일 모델 적합도 (N=2,345)

모델	Log-likelihood	BIC	SABIC	LMR ¹⁾	Adjusted LMR ¹⁾	BLRT ¹⁾
2계층 집단	-30557.94	61263.32	61202.96	<.001	<.001	<.001
3계층 집단	-30198.21	60598.17	60515.56	<.001	<.001	<.001
4계층 집단	-29802.96	59862.01	59757.16	<.001	<.001	<.001
5계층 집단	-29631.03	59572.46	59445.37	.198	.203	<.001

¹⁾ LMR, Adjusted LMR, BLRT는 p 값을 제시함.

표 2. 잠재계층별 부모 양육방식 차이 (N=2,345)

변수	집단 1 일반형 n=1,016(43.3%)	집단 2 부정양육형 n=202(8.6%)	집단 3 긍정양육형 n=671(28.6%)	집단 4 양가형 n=456(19.4%)	F-test	사후검증 (scheffé)
감독	8.54(1.79)	8.40(2.07)	10.59(1.46)	10.39(1.51)	$F(3,2341)=278.51^{***}$	3,4>1,2
애정	10.98(1.82)	7.71(2.04)	14.21(1.51)	13.04(1.87)	$F(3,2341)=909.32^{***}$	3>4>1>2
비일관성	7.10(1.44)	9.32(1.63)	5.24(1.56)	8.36(1.77)	$F(3,2341)=551.29^{***}$	2>4>1>3
과잉기대	10.10(1.84)	13.80(1.83)	8.46(2.12)	12.95(1.72)	$F(3,2341)=727.44^{***}$	2>4>1>3
과잉간섭	9.48(1.62)	12.67(1.93)	7.38(1.78)	12.06(1.73)	$F(3,2341)=904.30^{***}$	2>4>1>3
합리적 설명	7.69(1.47)	5.40(1.67)	9.79(1.49)	9.56(1.48)	$F(3,2341)=631.70^{***}$	3,4>1>2

*** $p < .001$

대, 과잉간섭이 적다고 평가하였다.

4개의 잠재계층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부모 양육방식 원점수에서 영역별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층별로 도식화 하였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보듯이 0점은 평균을 의미하며, 0점 이상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0점 이하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의미한다. 집단 1은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모두에서 평균과 유사하거나 평균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

였다. 부정적 양육과 긍정적 양육방식 모두 높지 않고, 가장 많은 부모(43.3%)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애정과 합리적 설명이 현저히 낮고,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도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이상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모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기대와 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도 일관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집단 2는 '부정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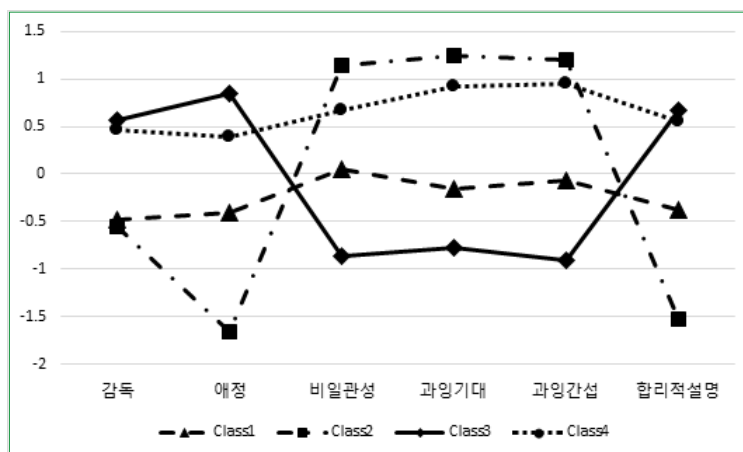


그림 1. 부모 양육방식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육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집단 2와 반대 패턴을 보인다. 긍정적인 양육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평균보다 높았으며,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낮게 평가하였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친밀감을 느끼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도받고 있다고 지각하며, 지나친 기대나 간섭은 없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집단 3은 '긍정양육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3과 비교했을 때, 감독과 합리적 설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나머지 양육방식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긍정적, 부정적 양육방식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

타내어 집단 4는 '양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별 사회정서발달 변인 차이

중학교 1학년 청소년 시기의 부모 양육방식 패턴이 중학교 3학년 시기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F*-검증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별 세부 비교를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했다. 전반적으로 긍정양육형 집단(집단 3)이 정서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격성과 신체 증상 문제는 양가형 집단(집단 4)도 부정양육형 집단(집단 3)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우울은 부정양육형, 일반형, 양

표 3. 잠재계층별 정서 문제, 자아 인식, 삶의 만족도 차이

변수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i>F</i> -test	사후검증 (<i>scheffé</i>)	
	일반형 <i>n</i> =1,016(43.3%) <i>M</i> (<i>SD</i>)	부정양육형 <i>n</i> =202(8.6%) <i>M</i> (<i>SD</i>)	긍정양육형 <i>n</i> =671(28.6%) <i>M</i> (<i>SD</i>)	양가형 <i>n</i> =456(19.4%) <i>M</i> (<i>SD</i>)			
정서문제	주의집중	17.76(3.66)	18.02(3.90)	16.01(4.17)	17.33(4.26)	<i>F</i> (3,2239)=28.72***	1,2,4>3
	공격성	13.74(3.22)	14.23(3.78)	12.17(3.64)	13.21(3.90)	<i>F</i> (3,2246)=31.18***	2>4>3 1>3
	신체 증상	17.10(4.87)	18.19(5.28)	15.40(5.03)	16.69(5.57)	<i>F</i> (3,2246)=21.26***	2>4>3 1>3
	사회적 위축	11.66(3.56)	11.98(3.61)	10.71(3.68)	11.16(3.90)	<i>F</i> (3,2242)=11.05***	1,2>3
	우울	20.66(5.90)	22.32(6.58)	18.07(6.10)	19.44(6.41)	<i>F</i> (3,2241)=34.94***	2>1>4>3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27.32(4.15)	26.27(4.40)	29.92(4.68)	28.36(4.50)	<i>F</i> (3,2241)=58.44***	3>4>1>2
	자아정체감	20.41(2.93)	20.20(3.08)	22.09(3.40)	21.37(3.25)	<i>F</i> (3,2240)=42.64***	3>4>1,2
	진로정체감	22.74(4.62)	23.37(4.77)	24.70(5.12)	24.32(5.01)	<i>F</i> (3,2242)=24.49***	3,4>1 3>2
삶의 만족도	8.30(1.92)	7.76(2.15)	9.07(1.94)	8.70(2.13)	<i>F</i> (3,2246)=30.68***	3>4>1>2	

****p* < .001

가형, 긍정양육형 순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아 인식 변인들은 정서 문제 변인들과 비교하여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는데,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집단 3)한 청소년들이 중학교 3학년 시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을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보고한 양가형 집단(집단 4)도 일반형 및 부정양육형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자아 인식 변인들과 유사하게 긍정양육형(집단 3), 양가형(집단 4), 일반형(집단 1), 부정양육형(집단 2) 순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양육형(집단 3)에 속한 청소년 집단이 2년 뒤에 가장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을 나타냈으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이 공존하는 양가형(집단 4)도 나머지 두 유형의 집단에 비해 비교적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중학교 1학년 시기 부모 양육방식의 잠재계층 유형을 분류하고, 각 집단이 중학교 3학년 시기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여섯 가지 부모 양육방식(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했다.

집단 1(일반형)은 여섯 가지 양육방식에서 전반

적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부모가 포함되었다. 집단 2(부정양육형)는 긍정적 양육방식에 해당하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낮고, 부정적 양육방식(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높게 나타났다. 집단 3(긍정양육형)은 집단 2와 반대의 패턴을 보였으며, 집단 4(양가형)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양육방식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Maccoby와 Martin(1983)이 제시한 네 가지 부모 양육방식(방임적, 독재적, 권위적, 허용적)과도 일부 비슷한 측면을 보이는데, 집단 2(부정양육형)는 독재적 양육방식으로, 집단 3(긍정양육형)은 권위적 양육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 1(일반형)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을 보이기는 했으나, 방임적 유형과 같이 자녀와 접촉을 자주 회피하거나 자녀의 욕구에 지속적으로 무반응으로 대하는 양육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 4(양가형)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Maccoby와 Martin(1983)가 제시한 허용적 유형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단일차원에서의 양극단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상반된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집단 2와 집단 3), 두 유형이 동시에 존재하거나(집단 4) 둘 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음(집단 1)을 보여주었다.

애정과 관심, 합리적 설명 등 긍정적인 양육양식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2년 후 가장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을 나타냈으며, 이는 단일 요인의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김지안, 한귀례, 2014;

문두식, 최은실, 2015). 반면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등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증가시키고, 자아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들의 관련성을 검증한 홍원준(2020)과 유사한 결과였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교육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내·외 생활 및 교우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자녀들의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긍정적 측면의 양육방식과 부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을 동시에 높게 지각하는 양가형(집단 4)도 비교적 높은 사회정서발달을 보였다는 점이다. 비록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높더라도 자녀에 대한 애정과 합리적인 양육방식을 보일 경우, 집단 1(일반형)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고,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과 학습습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황혜영, 김나영, 2018)의 결과와 유사하다. 위 연구에서도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 유형이 모두 높게 나타난 '애정만족/과잉기대' 집단이 분류되었으며, 학습습관과 관련된 성취가치, 숙달 목표 지향성, 학업시간 관리, 행동 통제에 있어 '합리-애정형' 집단(높은 긍정적 양육방식, 낮은 부정적 양육방식)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형', '애정부족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즉, 부정적 양육방식이 높더라도 긍정적 양육방식이 높을 경우, 두 측

면에서 모두에서 낮거나 부정적 양육방식만 높은 경우보다 자녀들의 학습습관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사회정서발달 측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양육방식의 유형은 긍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은 높고, 부정적 측면의 양육방식은 낮은 형태(집단 3)일 것이다. 그렇지만, 과잉기대 등 부정적 측면이 높더라도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을 경우(집단 4), 두 측면 모두 낮은 유형(집단 1)이나 긍정적 측면은 낮고 부정적 측면은 높은 유형(집단 2)보다 청소년 시기 사회정서발달이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 시기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과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나, 청소년 시기 정서 문제나 자아 인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은 청소년의 신체 건강, 자아존중감 및 우울 등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김현숙, 2013), 삶의 의미와 능동적인 정서조절 능력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신주연 등, 2005). 또한, 비만도 청소년 시기 자존감을 낮추고, 주의집중을 저하시키며,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이상록, 김진희, 2011).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도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애정적·성취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중학교 시기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정미선, 2010).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더불어 학교생활에서의 피해 경험, 인지 및 정서조절 능력, 신체적 건강,

또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시기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이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과잉기대 양육방식이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박찬미 등, 2020). 또한, 부모의 감독은 여학생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장여옥, 2015).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별로 정서 문제, 자아 인식, 삶의 만족도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정서발달 간의 종단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부모 양육방식은 자료가 구축된 1차 연도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방식도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며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방식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시기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이 변화해 가는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서 문제와 자아 인식,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넷째,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된 자료를 사용했으나, 엄격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일시점에서의 부모 양육방식과 사회정서발달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자료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 사회정서발달 변인과 중학교 3학년 시기 부모 양육방식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시점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부모의 양육방식이 시간이 지난 후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여섯 가지 부모 양육방식을 네 가지 군집 유형으로 분류하여, 2년이 경과 한 뒤 집단별로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비록 높더라도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높을 경우, 두 측면 모두에서 낮거나, 부정적인 양육방식만 높은 경우보다 중학교 시기 사회정서발달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과잉기대하거나 간섭을 다소 심하게 하더라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들이 우울 등 정서 문제를 덜 경험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과 삶에 대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재희 (200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대상아동 선별검사개발**. 국립특수교육원.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은경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김현숙 (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문두식, 최은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 박가화, 이지민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97-1013.
- 박아청,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13**(4), 113-142.
- 박지영, 정현숙 (2016). 남녀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6**(1), 21-37.
- 박찬미, 조현경, 김재철 (2020).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진로관련대화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2), 467-492.
- 소미강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정서 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양혜진 (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분노형태. **사회과학논문집**, **24**(1), 157-177.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오정아, 김영희 (2015). 부모의 갈등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6), 205-231.
- 이상록, 김진희 (2011). 비만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91-117.
- 이예은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 (2010).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28**(2), 123-130.

- 이지영 (2016).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217-244.
- 이평화 (201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의식, 학업성취,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현주, 강민희 (2008).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 (PAQ) 타당화 및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3), 5-31.
- 임정아, 조아미 (2018).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1), 323-346.
- 장여옥 (201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2), 199-221.
- 장의정, 강태석 (2020).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3), 1171-1195.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0.
- 정미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1974). **가정환경 진단 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 최미혜 (2016).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과 공동체적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2), 59-92.
- 최석강 (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홍원준 (2020). 중학생 정서·행동문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1(2), 291-320.
- 황혜영, 김나영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잠재프로파일 특성 및 변화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3), 679-702.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t.2), 1-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 (Vol. 1, pp. 169-208). Russell Sage Foundation.
- Feldman, B. (1996). Identity, sexuality and the self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41*(4), 491-507.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J. Kolligan & R. Sternberg (Ed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pp. 67-97). Yale University Press.
- Laird, R. D.,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2005). Peer relationship antecedents of delinquent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Is there evidence of demographic group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process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1), 127-144.
- Leung, C. Y. W., McBride-Chang, C., & Lai, B. P. Y. (2004). Relations among maternal parenting style, academic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2), 113-143.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Wiley.
-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during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110*(1), 47-66.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 Rohner, R. P. (2010). Perceived teacher acceptance, parental acceptance, and the adjustment, achievement, and behavior of school-going youths internationally. *Cross-Cultural Research, 44*(3), 211-221.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hek, D. T.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1), 1-22.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ureau of Publications.
- Tein, J. 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4), 640-657.

Impact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on Psychosocial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Latent Profile Analysis

Hyunyup Lee¹

Seungju Hyun²

Sungrok Ka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Associate Professor¹

Department of Psychology &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Lecturer²

Department of Psychology &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Professor³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on psychosoci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The data were taken from the first-year and third-year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which had been conducted annually from 2010 to 2016. The sample included 2,345 students who responded to questions regarding parental rearing attitudes in 2010. Latent profile analysis yielded four Classes (Class 1-‘general’, Class 2-‘negative parenting’, Class 3-‘positive parenting’, Class 4-‘both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Overall, Class 3 showed the lowest levels of emotional symptoms, and the highest levels of variables related to self-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Class 4 also showed relatively low levels of aggression, somatic symptoms, and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levels of variables related to self-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than those in Class 1 and Class 2.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in understanding the type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their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psychosocial development.

Keywords : parenting rearing attitudes, psychosocial development, latent profile analysis